“GPS가 연결 되었습니다”

(고전3:1~9)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GPS가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운전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저희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아! 얼마나 불편한지, 이제는 정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안내 멘트가 없으면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이런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 이 조그만 도시 강릉에서 조차도 어디를 처음 찾아가게 되면, 뭐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강릉은 뭐 10km이면 먼 곳입니다(작은 도시이니까).

그래도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란 게 원래 군인들이 사용하던 건데, 여러분 1983년에 KAL기 파일럿들이 실수로 소련 영공을 침해했다가 격추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군인들만 사용하고 있던 이 GPS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 확인 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라고 하는 것을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오늘에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연결이 돼 있어 자동차에서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들리는 멘트가 있잖아요, 뭡니까?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내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20,000km상공에 떠 있는 24개, 그러니까 지구상공 위에 6개의 궤도가 있는데, 그 6개의 궤도에 한 궤도마다 4개의 인공위성이 떠 있으면서, 약 12시간에 걸쳐서 지구를 공전합니다.
지구를 이렇게 12시간 만에 한 번씩 돌면서, 24개의 인공위성이 전파를 쏘아대는데, 그 20,000km 상공에서 쏘는 전파를, 내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수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GPS 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km, 1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때에도, 5km를 그냥 물어물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5km를 가더라도 20,000km라고 엄청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으면서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편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하게 될 때,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안 들리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들려야 속도위반 같은 것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과속방지턱을 모르고 그냥 덜컹덜컹해 가지고 뒤에 앉은 사람은 머리가 천정에 부딪칠 정도로 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리고 마음에 평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사람관계가 편안해야 됩니다.
사람관계가 편안하려면, 반드시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남편을 대할 때, 지금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취해야 될 가장 적절한 마음가짐, 가져야 될 가장 적절한 생각, 해야 될 가장 적절한 말과 행동에 우리 마음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남편이라고 해서 보이는 대로 내 마음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에서는, 거기에 반드시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고, 부부간의 관

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사이라도, 반드시 20,000km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쏘는 전파를 따라서 움직일 때, 남편에게 해야 될 가장 적절한 마음가짐, 생각, 말, 행동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인간관계는,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멘트를 따라야지, 내 눈에 보이는데 가까이 있다고, 내 귀에 들리는 내 가까이 있다고, 내가 손으로 악수하고 있는 관계라고 해서, 내 마음이 육체로 접하게 되는 그 사람을, 직접 관계하려고 달려들었다가는, 무수한 착각과 오해와 부적절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의 삶이 평강 가운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이유 대부분이 아마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살펴보시면.
그 인간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뒤따라가야 된다 이거지요.
특히 이게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아주 본질적이고 정말 중차대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따라서 사람을 관계하세요, 그게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건, 직장 상사이건, 친구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행복과 평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혜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분파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권면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같은 의미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시각을 달리 합니다.
마치 음악이 흘러가는 중에 약간 조를 바꾸어서 음악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너희들이 말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혜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이 분파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봐야 너희가 잘 모르니까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가 알아듣기 쉽게 이제 얘기 할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볼로도 나 바울도 너희를 위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를 볼 때 가져야 될 시각은, 아볼로가 지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헬라

인들처럼 지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부합한다고 아볼로파다 할 것도 아니고, 너희 기질 혹은 너희 생각에 나는 창립 멤버라는 생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바울파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 너희 시각이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아볼로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바울을 하나님이 있는 위치에서 같이 보지 않으면, 이 분파는 극복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혜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았다 그러면, 너희가 얼마든지 분파가 생기지 않는 평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이 얘기만 전한 이 사실에서,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아직 어린 아이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이다.
즉,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얘기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가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고, 신앙이 성숙한 자리까지 갔다 그러면, 당연히 아볼로와 바울이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뒤따라가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깊은 믿음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였다는 얘기에요.
근데 십자가를 붙잡는다고는 했는데 어린 아이에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젖과 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밥을 못 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밥은 말은 헬라어로 '부로마'인데, 이게 우리처럼 쌀로 만든 밥이 아니라 고기를 뜻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고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도 너희의 영적인 성숙상태가 어린 아이 상태에 있는데, 지금 어린 아이 상태에 있다는 게 육신에 속한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젖과 밥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심을 통해서 볼 때, 젖을 먹일 때도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고, 밥을 먹일 수 있는 신자에게 밥을 먹일 때도,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젖과 밥이 구분 될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 아는 것이 젖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돼 버리고 신앙의 성숙이 멈춰지고 맙니다.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데, 내 죄 사함과 구원에 관해서만 붙잡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만 붙잡는 게 아니라, 아예 십자가를 붙잡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에서 장보고 물건 사고팔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밥을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 했었더라면 분파도 없었을 것이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 죽으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GPS 20,000km 떨어진 인공위성으로부터 쏘는 전파를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처럼, 하늘나라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부터 보내지는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 보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분파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일반 삶에서 사람을 대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십자가를 놔버렸기 때문에 이런 분파가 생겼고,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내용이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젖을 먹는 아이들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게 될까요?
먼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대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돈, 권력, 아니면 학벌 이런 거 좋아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하면, 서울대학 졸업했다 그러면 일단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딱~ 치장한 그런 분을 딱 만나게 되면, 그분이 김 집사님이면 어! 이 집사 마음에 이 김 집사님이 굉장히 부자이고 돈이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마음이 뭔가 끌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님들까지 그래요, 저도 목사 했으니까 목사 사정을 제가 잘 알지요. 왜? 제가 그랬다는 얘기이니까.
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교인이 딱 들어오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막.
달라지는 것을 양심이 있으니까 안 달라져야지, 안 달라져야지 싸우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담고 있는 가치들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악수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호불호가 딱 나누어지고 판단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착각이고 오해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하지 않은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서울대 졸업한 사람을 만나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을 만나고, 벤츠 600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장관을 만납니다.
이때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에 대해서 죽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반드시 빛의 속도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마치 20,000km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처럼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장관을 보고 계시고, 서울대 졸업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명품 치장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 했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볼 때,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죽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내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요런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당장 해 보세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서, 십자가를 잡고 남편 앞에, 부인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십자가를 놓고 서 있어 보세요.
십자가를 놓자마자, 내가 보는 남편 내가 보는 아내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판단하고 말할 것들을 생각해 냅니다, 다 오류이고 다 착각입니다.
다~ 부적절한 생각이고, 부적절한 말이고, 부적절한 멘트가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딱 생각하자마자 어떤 구도가 그려지냐 하면,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5km 떨어진 곳을 가도 20,000km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받듯이, 내 바로 앞에 있는 손 뻗으면 닿게 되는 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구도가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좋아하실까, 어떤 행동을 해야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5km 떨어진 곳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전파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 내 바로 앞에 있는 사장님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내 안에 들어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비게이션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나로 하여금 가장~ 적절한 행동과 말에 도착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는 얘기가 생기게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따라서 사람을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듯이, 십자가를 시동 거는 겁니다.
십자가를 시동 걸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 사람관계가 반드시 이렇게, 심지어는 TV를 볼 때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조차도, TV에서 나오는 뉴스, 그 뉴스 속에서 뭐 감옥에 간 재벌들 이야기, 박 근혜 대

통령 이야기, 심지어는 연쇄살인범 이야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로 작동해 가지고, ‘GPS 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따라 그 사람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나 자신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그 사람을 내 스스로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내 심령의 평강이 깨어져 버립니다.
‘저 나쁜 놈, 저건 죽여야 돼’ 이러면서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전파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에덴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게 된다 이거에요.
에덴을 놓쳐버리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바울과 아볼로 모두가 다 사역자들입니다.
이걸 우리의 현실로 갖고 오면 누구냐 하면 목사님들이이에요,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아니면 전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목사에요.
자, 이 목사님들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목사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목사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과 연관 지어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인격,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격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목사님을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세요.
만약에, 아무리 십자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도,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죽고 사는 이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목사님이라면 십자가 얘기가 매번 설교 때에 안 나올 수가 없고, 매번 대화 때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집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로 살고 있는 분이라면 십자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만큼 목사님 자

신의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직 눈뜨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교리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발견되지 않을 때, 목사님을 비판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눈 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사님이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목사님이 감동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목사님을 덜컥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나 목사님 팬이에요' 이런 소리하지 말고, 십자가로 목사님에 대해서 죽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인간으로 대할 때, 반드시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뒤따라가면서 목사님을 대하라 이거에요.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갖는 생각, 말과 행동 가장 적절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죽고, 지금 눈앞에서 인사하고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빛의 속도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께 해야 되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성령님을 통해 받아듣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호불호의 판단이라든지 무엇이든지.
반드시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멘트를 뒤따라가면서 할 때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GPS가 연결 되었습니다'라는 성령님의 멘트를 뒤따라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